

세계유산에 대한 지역사회 운동과 인식변화: 생물다양성과 먹을거리운동

현 혜 경

제주대학교 SSK연구단 전임연구원

요 약

제주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자연유산이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인류공동이 보전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제주지역 사회의 개발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훑어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은 1960년대 이후 줄곧 국가 주도 아래 단기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어왔다. 개발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간들은 급속히 해체되었고, 섬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자연환경은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섬 공동체를 유지시켜 오던 생태순환적 삶 방식의 해체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정체성 혼란, 지역에 남아있던 다양한 문화의 소멸과 지나친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문제는 개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제주사람들은 이것이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섬이라는 공간에서 1년 동안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다양한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의 순환시스템을 잘 유지시켜야 했고, 이를 위한 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음식이 잡다하고 종류가 많다거나, 혹은 제한된 노동력을 공유하기 위해 부계, 모계, 처계의 관계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도 먹을거리 순환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장치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이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제주사람들에게 희귀하거나 보전할 생물이 많은 지역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제주사람들의 심연에 자리한 자연에 대한 인식과 이용방식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의 환기는 일상의 먹을거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재구조화시키는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운동들이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먹을거리 운동은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비롯해, 먹을거리 주권과 안전성, 윤리의 회복, 공동체 활성화 등 복합적 배경 위에 전개되고 있다. 먹을거리 관련 운동들이 여러 다양한 배경의 결합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는 제주지역에서 생태적 순환체계를 이루던 시기의 먹을거리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며, 중앙 통제 개발로 인해 무너진 지역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분권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특정지역의 인식을 넘어서 그 특정 지역이 속해있는 제주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문화다양성의 문제로 이전되어 재해석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들은 생물 자체의 보전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생활이나 문화와 함께 연동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남으로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운동 중 먹을거리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전개와 그로 인한 의식변화를 살펴보고,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공간인식의 확대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먹을거리 관련 운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네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먹을거리관련 운동들의 전개이다. 이 운동은 대개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30~40대 시민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들은 대개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를 조직하여 유기농산물과 환경제품 등을 직거래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때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공동체는 비대면적 불특정 관계가 아닌 대면적 특정 관계로,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공동체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생활 및 문화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은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먹을거리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행복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공동체를 재활성화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밑거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통적 생활방식 및 전통적 가치의 재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벌이는 먹을거리 관련 운동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영' 경작의 전통과 내재된 가치에 대한 관심의 확대이다. 우영은 집 근처의 텃밭으로, 제주지역 주민들 및 소규모 공동체들이 우영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을 통해 1년 동안의 공동체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완성해 왔다. 우영의 전통을 재해석한 먹을거리 운동들은 먹을거리의 생태적 순환체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윤리, 신뢰, 사회안전망과 같은 가치들을 찾아내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로 농민회를 비롯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도서관 등을 비롯한 각 단체와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폭등과 폭락의 거둑 속에서 채소 작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생산물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 먹을거리 순환체계에 관심을 둬으로써, 하나의 생물 종이 어떻게 파괴를 경험하지 않고 순환체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셋째, 제주지역에서 먹을거리 관련 운동 중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급식 운동은 빼놓을 수 없다. 제주지역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사, 학생, 학부모 중심의 먹을거리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친환경학교 급식운동은 2004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의 농사체험, 지역 먹을거리에 대한 식교육 등을 통해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학생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레 지역의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넷째, 개발과 더불어 사라지거나 변화 과정에 놓인 전통 먹을거리에 대한 민속지 조사와 정리 작업이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006년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주축으로 제주 전통음식에 대한 조사와 정리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지식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음식문화와 관련된 기초적인 민속지 구축 작업과 스토리

텔링 작업을 위한 자료가 정리, 분석되기도 하였다. 특히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자료를 정리한 서문에 1992년에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전통향토음식, 의약 등의 전통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지역의 전통음식의 조사와 발굴 및 정리는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과 관련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내에서는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연구 현장 등 각 영역에서 먹을거리 관련 운동들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 먹을거리 운동들은 단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겠다는 의지나 식량주권과 같은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운동들은 시공간을 재구획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재고함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음식문화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획득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생물권 보전지역을 넘어서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된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전통과 가치를 환기시키고 재해석하는 여러 행위들을 동반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먹을거리 운동으로 볼 수 있다.

I. 서론

1. 문제제기

제주지역 곳곳은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¹⁾ 이는 제주지역의 자연유산이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인류공동이 보전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제주지역 사회의 개발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훑어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은 19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이 시행된 이래 국가 주도 아래 단기간 안에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었다.²⁾ 개발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간들은 해체되었고, 섬 주민들이 유지시켜왔던 공동체의 생활방식은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섬 공동체를 유지시켜오던 생태 순환적 삶 방식은 모순적인 해체과정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정체성 문제를 비롯하여 문화 다양성 및 생물다양성 상실 등 총체적 사회문제 및 자연환경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주사람들에게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시키는 일은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원초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섬이라는 공간에서 1년 동안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연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의 순환시스템을 잘 유지시켜야 했고, 이를 위한 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음식이 잡다하고 종류가 많다거나, 혹은 제한된 노동력을 공유하기 위해 부계, 모계, 처계의 관계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

1)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이루어졌다.

2) 1963년에 지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관광개발을 중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 시기부터 제주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교통부 공고 제98호에 의거하여 1971년 5월 중문단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1972년 2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1975년 1월 건설부에서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고하였고, 1991년 12월 건설부에서 다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4년 6월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11월에 확정되었으며,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전문이 개정되고 범명도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는 문화도 먹을거리 순환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장치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이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제주사람들에게 희귀하거나 보전할 생물이 많은 지역을 보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심연에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자연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³⁾ 제주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이런 태도는 먹을거리 및 생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실천들은 보전 지역을 지키는 경계를 넘어 일상의 먹을거리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운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시키는 문제로 이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⁴⁾

제주지역에서 먹을거리 운동과 관련된 흔적들은 1990년대 말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먹을거리 운동은 크게 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시민사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먹을거리 운동(local food)을 비롯해 학교급식과 식교육, 전통먹을거리 방식에 대한 재고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네 방향의 공통된 인식은 제주지역에서 생태적 순환체계를 이루던 시기의 친환경 먹을거리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및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통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은 제주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일컫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1년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MAB) 국제조정이사회’가 개최한 MAB총회에서 제안되었다. UNESCO는 MAB사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적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76년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57곳이 처음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브리태니커, 2012). 2012년 3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114개국 580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각국에서 UNESCO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UNESCO MAB국제조정이사회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가 진행된다(브리태니커, 2012). 제주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범섬/문섬/섣섬을 비롯한 서귀포시 시립해양공원, 한라산으로부터 흐르는 효돈천과 영천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목격된다. 2009년 유기농식품 택배사업을 추진하던 일본 시민 NGO기업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먹을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대지를 지키는 모임 www.daichi.or.jp).

본 논문은 제주지역의 먹을거리 운동의 전개 현황과 시민들의 의식 변화 및 실천행위를 살펴보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들이 재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생태학자들이 생태계 연구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생물다양성(biodiversity)개념이다(강호정, 2012).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의 논쟁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의 핵심적 논쟁은 생물다양성이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생태계와 인류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지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다양성이 생태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면 위기상황에서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지구 정상 회의’이후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세계화 이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및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많은 관련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과 논문들이 나타났다. 먹을거리운동도 그런 일련의 배경 속에서 나타났다.

먹을거리 운동은 유기농 및 친환경 먹을거리 이용이나 전통음식의 재발견, 지역먹을거리 이용 등을 통해 공동체, 지역, 국가 단위의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그것이 토대가 되고 있는 동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종종 생물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문제로 이전되어 재해석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들은 생물 자체의 보전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생활이나 문화와 함께 연동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나다 시바(Shiva)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시바(2000)는 생물다양성과 먹을거리 관계를 분석하면서 민중의 각성적 삶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세계화 및 글로벌 기업의 생명공학이 초래한 세계적 위기에 주목하였다. 그가 본 세계화는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생태적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계급, 하나의 종, 하나의 성에 의한 모든 종의 약탈로 전

제한다. 거대 기업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다양성을 해치는 약탈을 거듭할 때 지구는 그 만큼 고통받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없는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였다. 때문에 민중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어야 하고 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eat here』의 저자로 잘 알려진 브라이언 헬웨이(Halweil)도 전세계적인 먹을거리 무역, 규모의 경제, 농기업의 독점 등에 대한 허상을 비판하면서 전세계 농민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동력을 분석하였다. 그는 지역먹을거리를 통해 지역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존의 미학을 설계해 보였다. 그는 지역이라는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먹을거리와 다양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피츠(Lipietz, 2002)와 싱어(Singer, 1999; 2008)도 정치적 의식화와 식생활에서의 실천 윤리학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환경 및 사회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싱어는 인류가 투명성, 공정성, 인도주의, 사회적 책임, 필요성 등 다섯 가지의 윤리적 원칙을 세우고 음식을 먹을 것을 제안하였다. 라페(Lappe, 2003)는 먹는 문제를 인권의 문제까지 확장시켰다.

먹을거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농업의 세계화, 근대적 식생활 위기, 환경문제, 윤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하여 먹을거리와 농업의 문제, 새로운 지역먹을거리시스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학자로 김종덕(1997; 2003; 2006; 2007; 2008), 허남혁(1999), 윤병선(2007; 2008), 김홍주(2004; 2006; 2008) 등이 있다. 김종덕은 지역먹을거리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허남혁은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먹을거리 문제를, 김홍주는 생협 등 새로운 생산-소비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먹을거리 분석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먹을거리 관련 연구들 상당수는 생물다양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이론들을 배경 삼아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사회의 먹을거리 운동에 대해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비롯해 현지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이 이용되었다. 언론 및 단체들의 활동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먹을거리 관련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들을 현지조사 및 면담조사하여 제주지역에서 먹을거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현황 및 목표, 내용 등을 파악하였으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들의 의식변화와 실천행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들이 먹을거리 운동에 녹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시민사회의 먹을거리 운동의 전개

1. 생활협동조합의 먹을거리 운동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사회 안에서 먹을거리 관련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런 먹을거리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생활협동조합이다. 제주지역에서 먹을거리 운동과 관련하여 두 개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한 살림 제주>와 <아이쿱 제주생활협동조합(이하 제주생협)>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생활물자를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먹을거리와 관련된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재건되면서 직거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따른 초국적 기업 및 투기 자본들의 식량지배체제 강화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항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식물에 대한 비인간적 생산체제와 자연의 순환체계 및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여 대안생산체제와 생활세계 전반을 새롭게 조직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⁵⁾

제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생협은 1999년에 설립된 제주생협이고, 그 다음으로 2008년 들어 한 살림 제주가 설립되었다.⁶⁾ 이 두 생협의 핵심적인 활동은 먹을거리 관련 운동으로, 2008년 말 기준 회원수가 2천여명 가량이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먹을거리 문제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 제주생협의 경우, 활동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직거래 사업과 교육사업, 생활문화운동, 유대활동이며, 이중 기반이 되는 것이 직거래 사업으로, ‘생명 있는 먹을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무농약 유기농산물 및 환경제품을 생산·가공하여 직거래 사업을 벌이는 한편 생산자공동체 및 환

5) 한국에서는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두게 되었다. 더욱이 IMF를 전후로 한국의 경제 주권이 급속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편입되면서 지역의 많은 생협들도 경영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때 새롭게 모색된 것이 사업연합을 통한 재건, 즉 생협 연대였으며, 이후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 생협 조직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생협조직이 한 살림, 아이쿱(icoop)같은 생협조직들로, 아이쿱의 경우 70여개의 지역에, 한 살림의 경우 20여개의 지역에 지역 생협들이 분포해 있다.

6) 제주생협은 ‘우리 농모임(1996년)’과 제주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1997)가 통합되어 1998년 ‘제주 푸른 생활협동조합’으로 창립하였다. 이 조직은 제주생협의 전신으로 1999년에 재창립되면서 비영리 법인인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살림 제주의 경우 2005년부터 생태 텃밭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공개 강좌 등을 실시하면서 3년간의 준비 끝에 2008년에 한 살림 제주를 창립하게 되었다.

경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유대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7) 한 살림 제주의 중점 활동 목표도 ‘지역과 함께! 주민과 함께 모두를 위한 한 살림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좋은 소비’와 같은 생활운동을 비롯해 생활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연대를 통한 한 살림 가치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주생협과 한 살림 제주 모두 가장 근본적인 활동 목표는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이다. 직거래는 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인 조합원들은 생산과 유통 경로를 알지 못한 채 행하던 이전 소비행태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지닌다. 이들의 소비 형태는 생산과 유통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농업이 생업이었던 전통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먹는 사람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전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그 단계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환경과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때문에 먹을거리 소비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실험들을 연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도시의 소비자 공동체는 지역별 혹은 주제별 모임을 만들고, 착한 소비와 살림정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공동의 텃밭을 일구거나, 전통 및 천연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지역살림 장터(Community Eco-Market)를 꾸려 생활물품을 나누기도 한다. 때때로 환경과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모임을 통해 논의된 것을 생협에 제안하기도 하고, 직접 실행하기도 한다. 생협의 소비자 조직은 단순히 물건만을 사서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8) 이런 모임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한 살림 제주의 2012년 6월 모임의 사례이다.

7) 이외에도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생활공동체운동의 의미와 뜻을 전수하는 ‘교육 사업’, 조합원들이 새로운 생활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8) 한살림 제주의 경우 연동, 신촌, 서귀포, 조천, 금악 등지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마을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 마을 모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를 돕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들을 창출하고 있다. 마을 모임 안에는 다시 주제별로 소모임의 형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표 1> 한 살림 제주 모임사례9)

마을모임	2012년 6월 모임의 내용
조천마을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룩 만들기 · 개별 포장 필름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 · 병제품 화학물질 사용을 지양하는 고민
금악마을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공급에 대한 논의 · 오이스킨 만들기
서귀포마을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문제(홈스쿨링)에 대한 논의

2. 우영공동체의 형성

제주의 전통적 삶 방식에 주목한 운동들도 있다. 2008년 이후부터 제주의 '우영' 전통을 재해석한 공동체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영'은 작은 텃밭을 일컫는 제주지역의 방언이다. 마을에 따라 도루깁이, 우영-팻, 우연, 우연-팻, 우연네, 위연, 우жат, 우잔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¹⁰⁾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순환주기가 빠른 우영의 채소를 활용하여 1년 동안의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완성하여 왔기에 곡류 중심으로 1년 동안의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완성하는 육지부 음식문화와는 달리 다양한 먹을거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순환체계를 완성시켜왔다.

이런 '우영'의 전통에 관심을 일찍부터 들린 것은 교육 현장이었지만, 현재는 꾸러미 사업을 비롯해 도심의 동단위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 여성농민총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철꾸러미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농업이 진행되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이런 제철꾸러미 사업(공동체 지원농업)에 우영의 전통을 결합시켜 텃밭(우영)에서 가꾼 제철 농산물을 매주 소비자 회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지역주민들은 지역 농민에게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받아 소비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 <우영>공동체를 조직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생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꾸러미편지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간에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

9) 한살림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마을 모임 내용을 본 연구자가 표로 정리하였다.

10) 우영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주의 초가 가옥의 구조에서 우영의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옥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영에 대해서 『제주어사전(2009)』에서는 '울타리 안에 있는 터알, 채소 따위를 갈아먹는 공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텃밭과 관련된 대표격으로 보고 있다.

를 나눈다. 이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 생태적인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¹¹⁾

무엇보다 이런 순환체계는 '신뢰'와 '다양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우영경작에서 생산과 소비주체가 동일한 것처럼, 이 우영공동체는 생산주체가 소비주체에게 생산의 전과정과 희노애락을 전면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비주체는 생산과정에 여러 경로를 통해 참여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신뢰'라는 가치이며, 이는 순환체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환체계를 이루기 위한 범주로서 먹을거리 다양성은 단지 품목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전통적 우영과 같이 사시사철 고른 작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전제로 한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우영을 30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본 결과 1년에 30-40여 가지 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우영의 이런 식문화의 전통이야말로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우영의 전통을 계승한 공동체 텃밭 가꾸기는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영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해석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부터 서귀포시 서홍동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제주시 오라동, 2011년에는 이도2동 등 주민자치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텃밭 가꾸기가 확산되고 있다.¹²⁾ 이런 텃밭가꾸기는

11) 생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이 가꾸는 경지는 500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농지가 넓어질수록 대규모 단작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꾸러미 편지 등을 통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통하여 생산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전통적인 '우영'처럼 생산과정 전체에 전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다만 1년 한 번은 반드시 산지에 가서 직접 농민들과 교류를 가져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 지역에서만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공동체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 2개, 경북에 2개, 전남 2개, 전북과 제주에 각각 하나씩 8개가 꾸러져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우영'의 전통을 가미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 등을 시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농민회 등을 비롯해 농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힐디드림 텃밭 가꾸기 행사'를 시작해오고 있다. 무상임대 한 밭(3090㎡)에서 재배한 작물은 독거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오라동 마을이 처음으로 2010년부터 1600㎡의 인근 밭을 싼 값에 임대하고 오라동 9개 자생단체가 한 구역 한 작물씩 재배를 맡아 경작한 작물을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이도 2동 주민센터는 2011년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남광경로당 앞 공한지에서 '도시텃밭이야기'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 텃밭사업은 '마을 텃밭', '학교 텃밭', '상자 텃밭'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텃밭은 남광경로당 앞 공한지 500평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10여평씩 총 40여명에게 분양,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가꾸고 있다. 학교 텃밭은 남광초등학교 옆 도유지 120평을 남광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작하고 있다. 상자텃밭은 켈러리, 모든 치커리,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묘종을 상자에 심고 집으로 가져가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심의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의 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데,¹³⁾ 여기서 수확한 작물들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속에서 채소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계층을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도시텃밭의 사례

주최	시작년도	사업 내용	목적
서흥동주민자치위원회	2009	훈디드렁 텃밭 가꾸기	이웃돕기
오라동9개 자생단체	2010	-	복지시설 전달
이도2동주민센터/제주 이어도지역자활센터	2011	마을 텃밭, 학교 텃밭, 상자 텃밭	판매수익 기부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시민사회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먹을거리 소비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생산 공간으로서 농촌이라는 이분법적인 근대 공간 개념이 상호보완적인 공간 개념으로 이동하면서 도-농간의 하나의 (순환)공동체로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여러 모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류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던 '일원화'과정과 '불신'으로부터 '다양성'의 보존과 '신뢰'를 재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3. 학교급식운동의 전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사회에서 먹을거리 운동과 관련하여 선구적인 운동이 벌어진 곳은 학교 급식이다. 제주지역은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는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초등학교, 1996년부터 중교

13) 하나의 사례로 탐라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이용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가족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둔 가족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동화구연 전문가에게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텃밭으로 가서 밭을 일구고 파종을 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가족이 방문하여 가족이 분양받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다.

등학교에서 학교가 직영하는 완전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는데,¹⁴⁾ 이러한 기반은 이후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 곳은 제주시 아라중학교다. 직영급식이어서, 2003년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유기농 급식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¹⁵⁾ 여기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친환경급식을 위한 '초록학교'와 '초록 농장'을 운영하여 직접 생산한 친환경 채소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을 시작하였다(2003년 11월 3일). 이때 제주지역 전교조를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확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6월 5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이하 친환경급식연대) 준비위'가 발족하였다. 이들의 슬로건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며,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세상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친환경급식연대는 2003년 11월 21일 친환경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도민발의를 선포하고, 제주 전역에서 조례 제정 청구 서명에 돌입하였다.¹⁶⁾ 2개월 만에 법적 요건인 7,800명을 넘는 1만 1천여명이 서명, 2004년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해당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지원이 이어졌다(현혜경, 2010).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3>처럼 제주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에는 10%, 2006년에는 30%로 점차 확대한 후 2007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현혜경, 2010).

14) 이때도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 시설을 완비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하였다.

15) 이때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교조와 함께 '학교와 1차 산업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수를 갖기도 하였다.

16) 친환경 급식은 돈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조례 제정 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관광복권을 발행한 제주도는 복권발행 수익금의 상당액을 학교 급식소 시설에 투자하였다. 또 제주도청 예산 69억원 이상을 교육청에 진출시켜, 학교 급식소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례 문구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위반이라며 행정자치부가 수정을 지시하였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례는 원안대로 공포되었다. 대법원에 조례제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도 방침을 철회하였고, 2005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친환경급식조례가 시행되었다.(오마이 뉴스 2006, 7월 11일자 기사 참조)

<표 3> 조례 제정 이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규모¹⁷⁾

년도	학교수(개교)	인원(명)	지원액(원)	비고
2005.03.02	29	11,295	10억	시범운영 개시
2006.03.02	97	32,142	20억	2단계 시범 실시
2007.03.02	197	71,002	35억	본 사업 시작
2008.03.02	225	76,700	37억5천만	-
2009.03.02	253	91,155	46억4천5백만	-

친환경급식운동은 제주 농업의 구조 변경에 미미할지라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농약과 비료를 다량 사용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농업이 주된 경작 방식으로 소수의 환금작물로 농업의 생산, 유통 구조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까지 친환경농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어주었다. 학교라는 큰 소비처는 친환경 및 지역농업 생산자의 수입과 생산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¹⁸⁾ 또한 2003년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친환경급식운동은 농업을 제주도 전략 산업으로 바꾸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발전 전략이 관광과 교육, 의료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 운동을 계기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농축수산인들과 도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제주도의 핵심 산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5년 정부와 제주도가 이를 수용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채택하였다(오마이뉴스, 2006년 7월 11일자 참조)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은 단지 아이들에게 최선의 재료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체험, 향토 요리 실습, 식교육 등과 연동되면서 근대적인 식생활 및 생활전반에 대한 반성을 비롯해, 농사와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계 설정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등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가고 있다. 2009년 2월 창립한 ‘아이건강 제주연대’도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의 개선, 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표 4>참조).

17)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제주연대(<http://www.jejugreen.net/>)에서 밝힌 내용을 본 연구자가 도표로 재구성한 것이며, 본 연구자의 2009년 논문의 표를 재인용하였다.

18)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가 확실하지 않아 친환경농민들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급 유통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급한 대로 농협을 유통망으로 선정한 결과, 농협의 친환경농업작목반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이 소외되었다.

<표 4> 청소년 대상 농사 체험의 사례들¹⁹⁾

주최	시작년도	대상	내용
동광초등학교	2001	6학년	벼농사체험
신촌초등학교	2008	교내학생	생태텃밭
농협제주시지부	2009	청소년	에듀팜
서흥동주민자치위	2010	서귀포 내 초중학생 대상	하논 생태 체험
남광초등학교	2011	교내학생	학교텃밭
탐라도서관	2011	청소년	밭과 도서관
제주환경교육센터	2011	청소년	친환경농업과 생태마을

4. 전통(향토)음식의 재발견

2006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주축으로 한국의 전통 향토음식을 조사하여 표준화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 서문에는 명백히 전통 향토음식의 조사와 발굴을 생물다양성과 연결하여 행하여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전통향토음식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음식문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발달하기 때문에 전통향토음식이 다양하면 다양한 생물자원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음식 자체가 획일화되어 민족 음식이나 전통향토음식이 줄어들면 식품재료로 이용되는 생물자원이 줄어들어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2년에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8조 j항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향토음식, 의약 등의 전통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만들었다.’²⁰⁾

제주에서는 1960~80년대 간헐적으로 제주의 전통음식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오영주(1999)는 제주의 전통음식이 450여종이 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이는 265여종의 전주나, 150여종의 오키나와보다 다양한 수이다. 이런 음식 품목수의

19) 몇몇 사례들만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 학교, 농업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더 많은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농사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 물론 전통음식의 부활은 산업적 측면, 국가이미지 활용 등 여러 측면이 동반되기도 한다.

다양성은 제주사람들이 식량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련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현혜경, 2010). 무엇보다 농사에 열악한 자연환경과 고립된 섬에서 부족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각종 질병 및 기아(배고픔)로부터 섬사람들의 생존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다양한 동식물을 기반으로 한 먹을거리의 결합을 통해 먹을거리 순환체계를 완성하여 왔다.

그러나 환금작물의 도입과 관광산업의 발전이 확대되는 1980년대 들어서면 제주사람들의 식생활은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고, 새로운 음식들이 제주 사람들의 식단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제주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업활동과 음식 섭취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제주사람들이 먹던 음식은 전통 음식이나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었고, 전통음식 혹은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제주의 음식들은 관광객을 위해 재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개발 방식은 근대적이거나 서구적인 것에 초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서구식 재료나 조리법이 가미되는 것과 같이 제주의 전통음식에서도 재료와 조리법의 변동이 일어났다.

20세기 말에 근대적인 음식문화에 대한 반성과 환경 및 전통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시도되면서 제주의 전통음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1995)은 제주의 전통음식 234종을 정리하여 처음으로 제주음식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시도하였고, 그 작업을 진행했던 김지순(2004)은 제주의 음식을 조사·발간하였는데, 그는 제주의 음식을 밥, 국, 죽, 지짐(조림), 나물(숙채), 김치(김치), 찜, 젓, 범벅/즈베기류, 구이, 장아찌, 회, 전, 적, 떡, 엿, 국수, 찜, 음료, 기타 등으로 나누고, 계절별 음식과 식재료 조리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2006년에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제주의 전통음식 303종을 조사하여 정리한 바가 있는데, 전문가협의회에서 마련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제주의 음식을 분류하고, 그 음식명과 재료, 분량, 만드는 법 등 정리하여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지식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음식문화와 관련된 기초적인 민속지 구축 작업과 스토리텔링 작업을 위한 자료가 정리,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음식문화의 저변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탈근대 산업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내에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연구 현장 등 각 영역에서 제주의 음식문화의 전통과 재발견에 대한 운동이 2000년대 들어 확

산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근대적 삶에 대한 반성과 환경에 대한 문제, 윤리의 재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모색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식문화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삶의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이를 토대로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음식문화와 관련된 운동들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국적 세력에 의하여 획일화·일원화되고 있는 농수산업과 음식문화에 대해 지역의 전통과 그에 기반한 다양성이라는 맥락으로 대응하여 인류 생존 위기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먹을거리 운동과 지역사회 시민의 의식과 실천

1. 의식변화

먹을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의 확산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먹을거리에 대한 태도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²¹⁾ 대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생존이나 문화와 연결된 선상에서 대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자세였다. 그러나 생협조합원들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의식변화는 먹을거리를 생존과 문화양식을 넘어서 먹을거리 안전성, 식량주권, 지역사회활성화, 지구환경 문제로 확대, 재해석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²²⁾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를 재활성화 하고 식량주권 및 자연보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21) 조사 당시 한 살림 제주 및 제주 생협 조합원들의 총 회원 수는 2,000여명으로 각각 50명씩 100명을 조사하였다. 성별의 구분은 두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먹을거리를 다루는 대상이 주로 여성 주부인 관계로 여성 조합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성 18명, 여성 8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56명, 40대 31명, 50대 10명이며, 평균 나이는 39세이다. 30-40대가 많은 것은 조합원들 중에서도 30-40대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를 차지하여 대체로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거주지는 제주시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38%, 사무종사자 및 공무원이 19%, 전문가 14%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수준은 2천2만원 이하 8%, 3천만원 이하 44%, 4천만원 이하 21% 5천만원 이하 13%, 5천만원 이상 14%이며, 응답자의 가족평균소득은 4,600여만원으로, 최소소득은 1천만원, 최대소득은 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 전국도시가계평균소득 3,732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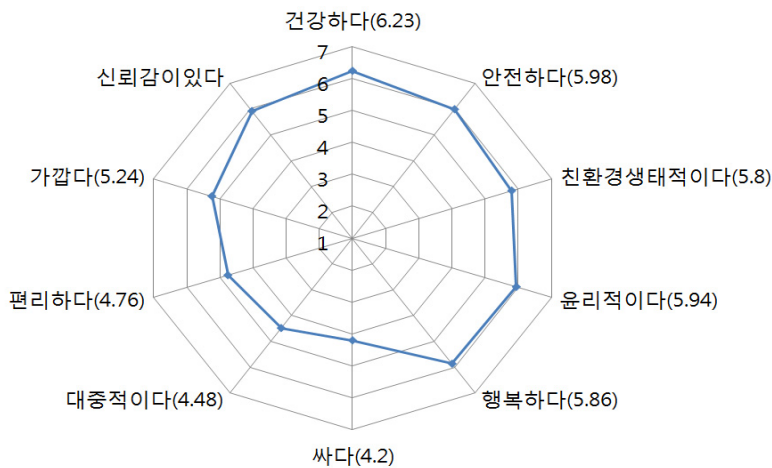
22) <표 5>를 보면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원거리 유통, 유전자 조작, 생태조작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 5> 먹을거리 관련 중요 문제

먹을거리 안전성	식량주권	지역사회활성화	지구환경	합
68.2%	24.2%	4.5%	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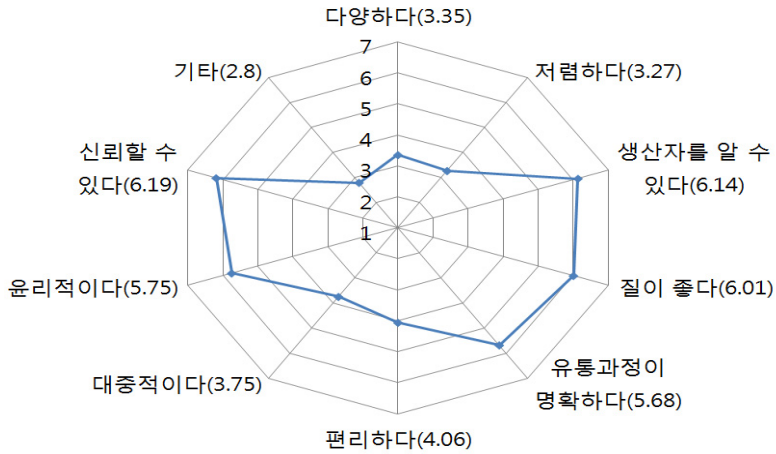
이들의 이런 의식은 지역먹을거리 이용 및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먹을거리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많은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표 6>에 보이듯 지역먹을거리 이용으로 건강, 안전, 환경, 윤리, 행복, 신뢰 등의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문화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런 의식 때문에 이들은 생협 등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매장 이용에 관심이 많고, 유기농 매장을 이용하여 <표 7>과 같은 것을 얻음으로서 건강, 안전, 환경, 윤리, 행복, 신뢰 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 지역먹을거리는 편리함과 대중적인 것에 익숙한 현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가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가격, 편리함, 거리와 관련해서는 지역먹을거리들을 이용하는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유기농 매장 이용이 고학력자로 도시에 살고 있는 의식 있는 전문직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통한 구별짓기로 이해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실제 조사에 응답한 100명의 평균도 고학력에 평균수입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표 6> 지역먹을거리 이용에 대한 이미지²³⁾



23) 4점을 기준(보통)으로 7점을 만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표 7> 유기농 매장에 대한 이들의 이미지²⁴⁾



또한 이런 운동들은 제주지역 사회에서 주로 30~5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경제개발의 혜택을 처음으로 누린 세대이자, 한국의 민주화 운동 등 자유, 분배 등의 가치를 접하면서 기존 세대와 갈등을 벌이던 세대였다. 이들의 먹을거리 의식은 자연환경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과 맞닿아 있다. 또한 한 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태도는 한국사회 혹은 제주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넘어 세계화, 지구환경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먹을거리에 대한 의식의 이전과 확장은 현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문제를 먹을거리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문제도 생물권 보전지역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삶을 돌아보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지구 환경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는 생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차후 학교 및 다양한 시민들의 의식변화 조사를 통해 의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의식은 곧 먹을거리를 실천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24)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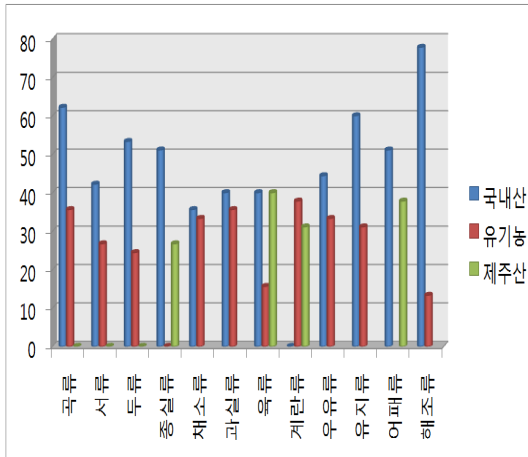
2. 의식의 변화와 실천 행위

먹을거리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이들이 먹을거리를 획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개 이 운동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들이 선택하는 먹을거리는 '지역먹을거리'와 '전통적 먹을거리'다. 전자의 경우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먹을거리를 획득하는 방식은 다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문화적 혹은 정치·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지역먹을거리도 국내산, 제주산, 제철생산, 유기농 생산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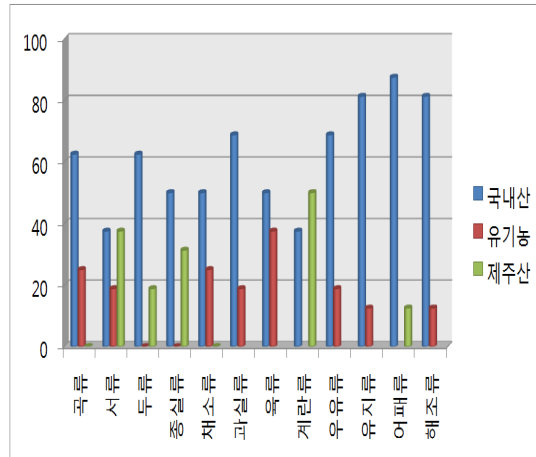
생협조합원들을 조사했을 때, 현재 먹을거리 문제의 대안적 먹을거리로 지역먹을거리를 상정하고 있었으나, 먹을거리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먹을거리의 실천행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먹을거리문제를 안전성 문제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대개 국내산과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먹을거리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반면 식량주권 및 지역사회활성화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산과 제주산 먹을거리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구환경문제에 근거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거의 유기농 생산방식 및 제철 생산 방식을 통해 획득한 먹을거리를 취하고자 하였다.

<표 8>은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실천 행위의 관계를 조사한 표인데,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와 그에 따라 식재료 구입시 우선과 차선 순위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먹을거리 안전과 식량주권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국내산, 제주산, 유기농이 혼재된 가운데 국내산이 주요 획득 경로이었지만, 지역활성화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얻기 어려운 작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주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 반면 지구환경의 경우 뚜렷하게 유기농으로 생산된 작물을 우선 순위에 둬으로써 다른 문제들이 생산지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생산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지구환경을 지키는 문제가 자연의 생태 및 순환체계를 거스르지 않는 생산방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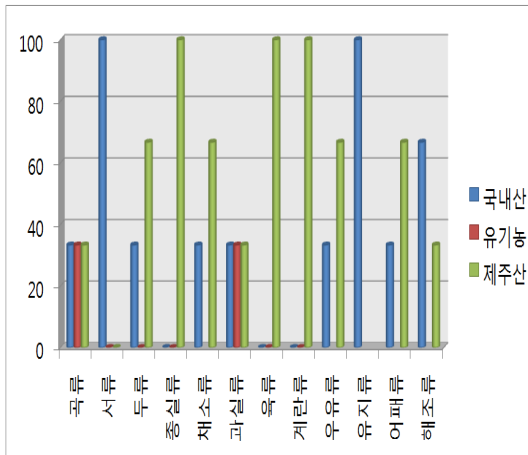
<표 8> 먹을거리 관련 중요 목표와 실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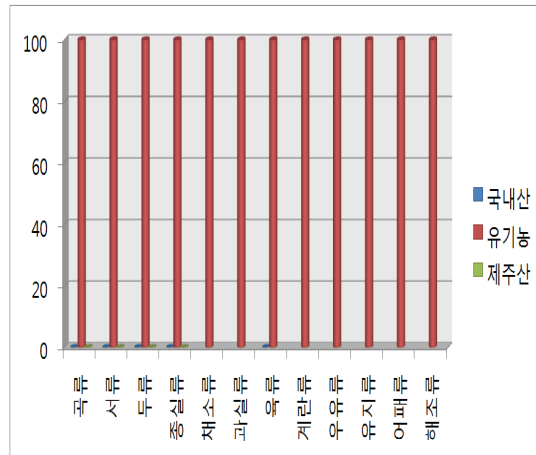
먹을거리 안전



식량주권



지역활성화



지구환경

100명이라는 제한된 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표 8>에서 보이듯 지역먹을거리라는 것이 먹을거리 문제의 새로운 대안적 먹을거리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그 안에는 다양한 층위의 먹을거리 획득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지역'은 '대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먹을거리 문제의 대안을 지역먹을거리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먹을거리 문제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국내산, 제주산, 제철생산, 유기농 생산 등 여러 맥락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대안적 먹을거리로서 '지역먹을거리'를 먼저 상정하는 것은 지역먹을거리라는 것이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담론이 되어 있거나 혹은 먹을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산공간인 '지역'을 떠

났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역’과 같이 ‘전통’ 또한 새로운 대안적 담론이 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먹을거리로서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전통음식에 대한 실천행위는 사라져 가고 있는 토속음식들에 대한 재인식, 재래시장 이용 등의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전통음식을 창조해냈던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 공유(수눌음), 공동재배(주말농장), 놀이문화의 창조, 우영의 재해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형성 등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들을 유발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체험은 과정에서 수확과 수확한 작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먹을거리에 대한 순환체계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면담결과 학생들이 섭취를 거부하던 작물과 음식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는가 하면 전통음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사체험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과 생업에 대한 이해력이 폭넓어지는 것도 나타났다.²⁵⁾

IV.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제주지역 먹을거리 운동의 사회적 함의

1. 인류 보편 가치 및 전통 가치들의 재발견

제주사회는 현재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던 전통적 생활방식과 가치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먹을거리 운동들은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 행복과 신뢰문제, 먹을거리 안전성, 주권, 공동체의 재구조화, 사회안전망, 지구 환경 등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면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자, 인류문명을 형성시킨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 중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신뢰와 정의, 분배 등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25) 2008년부터 생태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신촌초등학교는 과종과 작물 수확을 체험하고 수확한 작물을 나눌뿐만 아니라, 수확작물 및 친환경우리농산물 관련 전시, 체험활동 사진·학습지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확작물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각 객체들이 상호 종속적이지 않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런 관계의 형성은 신뢰, 정의, 분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 정의, 분배의 바탕 없이는 대등한 관계란 형성될 수 없으며, 관계의 소실은 다양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앞의 보았던 많은 먹을거리운동의 가장 근본에는 인간 '신뢰'와 '정의', '분배'의 문제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먹을거리 위기를 통해 인간 신뢰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 그리고 분배 문제 등 인류 역사의 가장 취약한 면면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인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너져버린 인류보편의 가치들을 재구축하여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인류 공동체의 지속적인 존립문제에 다가서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먹을거리운동은 인류 보편의 가치 외에도 전통적인 가치들을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섬공동체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 형성하여왔던 여러 행위들과 가치들을 재고하고 있다. 생태적인 삶을 형성시켜야만 제한된 자원들 속에서 순환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었기에 자연에 대한 태도는 지배적인 자세이기보다는 공존하는 자세로 다양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동력의 결합에도 나타났으며, 섬공동체는 생존 공동체로서 신뢰, 정의, 분배 문제 외에도 섬공동체가 위기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유'와 '나눔'을 섬공동체 문화 전반에 투입시켜놓아, 사회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우영을 재해석한 행위들은 이런 전통들을 재창조한 예이기도 하다.

2. 생태순환적인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현재 제주지역의 먹을거리 운동들은 단지 먹을거리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총체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공생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공동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생태순환적인 먹을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그것은 생태순환적인 지역사회 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이 운동은 친환경 농업이나 자연순환적인 농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며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재료들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작고 큰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의 토대는 생태순환적인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구조화에 동원되는 주된 방식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소비의 관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지향한 목표(안전한 식품이든간에)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광역 먹을거리체계의 거리를 축소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순환시켜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 자본의 유입이 아닌 내부 자산에 의한 발전을 전제한다. 이는 지역의 기본적인 인구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건강성을 고려해 지역기반의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한다(현혜경, 2009). 그러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지역의 범위는 언제나 논쟁 대상이다.

둘째는 지역공동체와 문화를 점검하고, 신뢰할 만한 새로운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도시 소비자 공동체는 주제별, 마을별 등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인적 동원 방식에 의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모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다. 그들은 모임의 주제를 정하고, 실행한다. 내용은 공동의 텃밭 가꾸기, 전통 및 천연요리 만들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교육, 농업, 소비, 환경, 지역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에까지 의견을 나누고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는 제주지역에 남아있던 사회 안전망의 전통들을 재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개발과 변화로 인하여 잃어버린 공공자산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나눔'의 소멸이다. 제주지역에서 노동력과 음식을 공유하는 일은 섬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노동력공유는 곧 음식의 나눔으로 이어졌다. 노동력 공유를 위해 부계, 모계, 처계가 대등하였으며,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가 존재해왔다. 이들의 결합은 일상생활과 의례에서 먹을거리를 나누는 행위로 더욱 공고히 되었는데, '뚝추림', '제사 반 나누기'와 같은 의례 음식의 나눔을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우영 등을 통해 먹을거리를 나누었다. 이런 전통을 재해석하여 도시 텃밭을 일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도

시 텃밭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식들이 주체들에 따라 동원되고 있다. 마을 단위, 학교 단위, 생협 단위, 개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먹을거리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회운동의 제한된 목표에 비해, 이 먹을거리 운동은 상당히 다양하고 개방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폭넓게 확장되는 데에는 제주지역에서 벌어진 개발과 그로 인한 공공자산의 상실에 대한 경험적 궤적이 하나의 계기를 만나면서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섬이 가지고 있던 옛 생태 순환적인 전통과 재해석에 관심을 환원시키며, 개발로 인해 목살되었던 공동체의 전통을 찾고, 재해석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들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생물다양성은 생물간의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 종만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들 간의 순환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것은 문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제주지역 사람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사람들은 새로운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고갈은 생태순환적인 삶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환경문제이다.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환경경제학에서는 서서히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삶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개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자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상징적으로 해당 지역을 넘어 제주사회 전체의 삶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종덕, 1997, 『원조의 정치경제학』,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2003, 「WTO의 농업구조화: 문제점과 대안」, 『농촌사회』 13권 1집, 239-261.
- _____, 2006, 『농업사회학』, 경남대학교출판부.
- _____, 2007, 「지역식량체계 농업회생방안과 과제」, 『농촌사회』 17권 1호, 5-32.
- _____, 2008, 「우리나라 로컬푸드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 제9권 제2호, 85-113.
- 김지순, 2004, 『제주도음식』, 대원사.
- 김홍주, 2004, 「슬로푸드운동과 대안식품체제의 모색」, 『농촌사회』 14집 1호.
- _____, 2006, 「생협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제의 모색-두레 생협생산자 회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6집, 95-141.
- _____, 2008, 「생협운동과 지역먹거리체계: 풀무생협사례 연구」, 2008년 한국 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먹을거리의 환경사회학』.
- 오영주, 1999, 「제주향토음식 문화와 관광상품화 방안」, 제주학회,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환경(발표문)』 .
- 윤병선, 2007, 「일본지산지소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 농촌사회학회 정기학계 학술대회.
- _____, 2008, 「로컬푸드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 방안」, 『산업과 경제 연구』.
- 윤형근, 2009, 「로컬푸드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지역 로컬푸드 아카데미(2009년5월-6월)』.
- 제주도, 2009, 『제주어사전』.
- 제주도농업기술원, 1995, 『제주의 전통음식』.
- 허남혁, 199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담론 분석: 국내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현혜경, 2009, 「제주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제35호, 107-138.
- 현혜경, 2010, 「제주지역 생협조합원들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인식과 실천」, 『탐라문화』 제36호.
- 현혜경, 2011, 「제주지역 '우영'의 전통과 현재적 지평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제39호, 413-468.

- Barry, J., *Environment and Social Theory*.(추선영 · 허남혁, 2004, 『녹색사상사: 루소에서 기든스』, 이매진.)
- 한국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제주도」, 『한국의 전통향토음식』 10.
- Halweil, B., *Eat Here*, 2004.(김종덕외, 2006, 『로컬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서울.)
- Ife, J., *Community Developemnt*, 2002.(류혜정, 2005, 『지역사회개발』, 인간과 복지.)
- Lappe, F. M., *World Hunger: twelve myths*.(허남혁, 2003,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 창비.)
- Lipietz, A., 허남혁(역), 2002, 『녹색희망』, 이후.
- Shiva, V., 허남혁,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 Singer, P& Mason, J., *The Ethics of What We eat*(함규진, 2008, 『죽음의 밥상』, 산책자, 2008.)
- Singer, P., *Animal Liberation*, 1975.(김성한, 1999, 『동물해방』, 인간사랑.)

❖ 신문기사

- 오마이뉴스, 「들어는 봤나, 별4개짜리 학교급식-급식과문, 제주에 물어보라」, 2006년 7월 11일자.
- 한국일보, 「강호정의 에코에코」, 2012년 1월~7월

❖ 기타자료

- <한살림제주> 정관
- <제주생활협동조합> 정관
- <아이건강연대제주연대> 창립식(2009년2월26일) 자료 및 정관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CRC 사업(2006년) 자료

❖ 인터넷 자료

- 대지를 지키는 모임 <http://www.daichi.or.jp>
-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제주연대 <http://www.jejugreen.net/>